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2

‘젊은 Y-MART’ 거침없이 달린다

영암마트

“향토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 공세에도 지역 골목상권을 곳곳하게 지키고 있는 향토 유통업체인 ‘Y-MART(영암마트·대표 김성진) 임직원들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도약의 날개를 활짝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30여명의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5, 10km 구간을 달리며 새봄의 에너지를 충전하며 올해 사업의 변화를 기원한다.

1992년 리어카 한대로 청과야채 도매업을 시작한 김성진(44) 대표는 이듬해 북구 용봉동에 26.5m(8평) 규모의 ‘영암농산물 직매장’ 열었고 5년만에 528.9m(160평)로 매장을 넓혀 ‘영암마트’ 용봉점으로 이름을 바꿨다. 20여년이 지난 2월 현재 광주 45개소,

향토기업 자존심 걸고

30여명 임직원 시민들과 함께 질주

온 몸에 새봄 충전 사업 변장 기원

전남 6개소, 전북 1개소 등 가맹점 52개소, 종업원수 1000여명에 달하는 중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했다. 당초 ‘영암마트’로 시작했으나 규모가 커지며 지역색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젊다’(Young)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Y-MART’로 바꾸었다.

이르면 4월말에 용봉동 본점 인근에 2975.2m(9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착공하고, 7~8월께에 서울·경기지역에 점포 2개소를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연말까지 70개소, 오는 2015년까지 가맹점 100개소를 개점해 나갈 청사진을 갖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만·송정점을

오픈했고, 3~4월에 오치·광천·두암·진월점, 목포점 등을 차례로 개점할 예정이다.

이처럼 거침없는 Y-MART의 성공비결은 ‘부지런함’과 ‘가격 경쟁력’, ‘주인의식’이다. 산지구매와 도매를 통해 직접 공수한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대형마트보다 10~15%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 현금결제를 통해 공산품의 할인폭을 늘려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지난해에는 하나SK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암마트 전용 할인카드를 출시해 구입금액의 5%를 할인해주고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대형마트 수준의 고객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Y-MART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문을 여는 등 동네 슈퍼의 부지런함까지 더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년전부터는 명예퇴직자 등 60대 시니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Y-MART(영암마트·대표 김성진) 임직원들이 합친 질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5명을 채용해 개점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고객 편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Y-MART는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특징이다. Y-MART는 직원에게 2~4년이상 근무하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영암마트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는 예비사장인 셈이다. 그래서 Y-MART는 ‘사장 사관학교’라고도 불린다. 이미 50여명이 독립해 가맹점을 개점해 ‘사장’이 됐고, 현재 다양한 삶의 궤적을 보이는 20대 초반

청년부터 60대 퇴직자에 이르는 50여명이 ‘사장’을 꿈꾸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사장교육은 매장 청소부터 시작해 배달, 판매, 영업관리까지 하루 평균 14~18시간씩 혹독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도 많다.

김 대표는 새벽 5시에 기상해 12시에 귀가하기까지 하루 19시간을 오로지 일에만 매진한다. 김 대표는 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뛰며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한편 각 매장을 순회하며 사장들과 대화하며 더 나은 경영방안을 모색한다.

김 대표는 체력관리를 위해 1주일에 2~3

차례 2km 조깅을 하거나, 일요일 새벽에 광주, 전남·북 산을 찾아 새벽산행을 한 후 다시 업무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Y-MART는 사람·행복·나눔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사랑나눔 봉사대’를 꾸려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익금의 20%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도서관 4곳과 공방 4곳을 후원하고 있으며, 노인정에 정수기 200여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3년안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48km



KIA 양현종, NC와 연습경기 30이닝 무실점

컨디션 빠른 상승세 ... 선발 재진입 청신호

5-4 승리 이끌어

KIA 양현종의 선발 재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KIA 타이거즈는 6일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스 필드에서 NC 다이노스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좌완 양현종은 이날 선발로 나서 3이닝 무실점의 쾌투를 선보이며 팀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첫타자 박민우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양현종은 김중호에게 연속해서 삼진을 뽑아낸 뒤, 2루 땅볼로 나성범을 잡아내며 1회를 마무리 했다.

2회 선두타자 권희동에게 2루타를 허용했지만 모창민을 1루 땅볼로 유도한 뒤, 조경호와 조영훈을 연속삼진으로 요리하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3회 3루수 실책으로 선두타자 김태균을 내보낸 양현종은 1사1루에서 연달아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하지만 나성범의 타구가 유격수 정민으로 향했고, 권희동도 좌익수 플라ियो로 잡아내며 실점없이 3번째 이닝을 끝냈다.

3이닝 1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 직구 구속도 148km까지 나오면서 선발 재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현종은 올 시즌 선동열 감독이 ‘무조건 선발’이라고 언급한 마운드의 카다.

양현종은 2011년에 이어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하락세를 타면서 위기론이 나오기도 했다. 중간과 선발을 오가며 감잡기에 나

섰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양현종의 지난 시즌 성적은 28경기에서 거둔 1승 2패 2홀드, 방어율은 5.05이었다.

올 시즌 선동열 감독이 선발에서 마무리를 찾고 있는 만큼 양현종은 반드시 선발 역할을 해내야 하는 핵심 선수다.

자세 청백전이 아닌 첫 정식 연습경기에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분위기는 좋다. 아쉬움은 남는다. 볼넷과 투구수, 믿음직한 선발로 자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에서 만족스런 점수는 받지 못했다.

양현종이 이날 13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던진 공은 69개. 수비수 실책으로 시작된 3회 연달아 볼넷을 내주면서 투구수가 늘었다. 양현종도 이 부분이 아쉽다.

양현종은 “3이닝을 던지면서 볼넷을 두 개나 줬다. 3회 투구수가 늘면서 좋지 못했다. 오늘 경기를 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프지 않고 공을 던졌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KIA는 5회 1사1루에서 김원섭의 2타점 2루타와 박기남의 2타점 적시타로 4-0을 만든 뒤, 6회 상대 투수의 폭투로 5-0까지 달아났다.

7회 신인 투수 이효상이 유격수 실책을 더해 4실점(2자책)을 기록했지만 마무리로 나선 박경태가 2와3분의 2이닝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경기는 5-4 KIA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발진 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양현종이 NC와의 연습경기에서 쾌투를 선보였다.

‘神弓 커플’ 기보배·오진혁 성대결



6일 충북 괴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6회 전국 실내 양궁대회에서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과녁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실내 양궁대회 ‘카메오’로 미래 신궁 최예진·김광철과 짝경기는 기보배조가 승리

런던올림픽 양궁 개인전의 남녀 챔피언이 성(性)대결을 펼쳤다.

기보배(광주광역시청)와 오진혁(현대제철)은 6일 충북 괴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 실내 양궁대회에 ‘카메오’로 나왔다. 이들 스타는 이 대회의 남녀 조동부 우승자들과 혼성팀을 이뤄 성대결에 나섰다.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오진혁은 최예진(오수초), 기보배는 김광철(하남 천현초)과 짝을 이뤄 사대를 썼다. 혼성경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없지만 국제 양궁연맹(FITA)에서는 정식경기로 치러진다.

이날 경기는 한 엔드에 두 발씩 세 엔드 합계 12발을 쏘아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70m 떨어진 지름 122cm 과녁을 노

리는 올림픽과 달리 실내양궁은 18m 거리에 있는 지름 20cm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린다.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바뀐 사거리와 과녁에서 처음부터 명중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기보배는 해냈지만 오진혁은 못해냈다. 거기서 승부가 갈렸다. 오진혁은 1엔드의 두 발을 9점구역에 꽂고 말았다. 기보배와 그의 파트너인 초등학생 김광철은 첫 두 발을 모두 끝단에 넣었다. 기보배-김광철 조는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켜 117-113으로 이겼다.

오진혁과 기보배는 경기가 끝난 뒤 파트너에게 모자와 유니폼 등 선물을 건넸다.

기보배는 김광철에게 “항상 노력하는 끈기 있는 선수가 되라”며 용기를 북돋웠다. 오진혁은 최예진에게 “지도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큰 꿈을 지니라”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 남녀 청년부 개인전에서는 신재훈(코오롱)과 박예진(청원군청)이 우승했다. 남녀 청년부의 단체전 타이틀은 각각 현대제철과 현대백화점에 돌아갔다. /연합뉴스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솔목,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2월28일까지 적용됩니다.(설연휴기간 3만원추가)

전국립광주박물관 김정현 학예사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역사여행
일정 2013년 2월 16일(토)~2월 17일(일)
지역 군산 전주 지역
강사 김정현 선생님 (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봄’ 대표)
목적 한국역사의 바른 이해
재미있는 한국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금액 목포 이마트출발 14만원
광주 문예회관 후문 앞 출발 13만원
캡프 포함사항: 차량비, 한옥마을 숙박비 4인실기준 (3인실 9,000원 / 2인실 25,000원추가)
관광지 입장료, 식사 4식, 자료집
예/약/문/의: 1588-3925